제5강 자유의 이념과 합리적 정신

개요: 그리스 비극은 합리성과 비합리성(일종의 신비주의 혹은 종교성) 사이의 긴장에서 태동했다. 즉, 비극 속에서 합리적 정신과 형이상학적 초월에 대한 감수성이 맞물린다.

자유의 두 번째 계기-보편성

우리는 비극의 본질이 자유에 있음을 보았다. 즉 그리스 비극은 수동적 당함이 아닌 능동적 행함에서 발생하는 비극이다. 한편, 자유는 능동성(주체성)에 존립할 뿐 아니라 정신의 보편성에 존립한다. 능동성과 마찬가지로 보편성 역시 자유의 한 가지 계기이다. 즉, 보편성에 대한 의식은 자유의 본질이다.

그리스적 토양에서 자유와 보편성은 필연적으로 연결된다. 우선,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한 '시민'(참된 의미의 자유로운 존재)은 타인의 강제 아래 있지 않다는 소극적 의미에서 자유로운 존재일 뿐 아니라 공동체를 형성하고 관직과 법정에 참여한다는 적극적 의미에서 자유로운 존재이다. (cf. 현대의 자유는 해방 내지 탈주로 이해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그리스적 자유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자유는 시민의 자유가 아니라 거류민의 자유이다.)

시민은 폴리스라는 인륜적 공동체를 완성해야 한다. 시민이 된다는 것은 보편적인 공동체를 더불어 형성한다는 것이다. 시민의 주체성은 자족적 개별자의 주체성이 아니라 사회적, 공동체적 주체성이다. 이때 폴리스는 일차적으로 정치적인 공동체이다. 나는 나를 규정하는 사회적 공동체의 그물망을 주인으로서 장악할 때에만 자유롭다. 즉 개별적 주체인 나는 보편적 공동체의 주인이 될 때에만 자유롭다. (cf. 자유가 탈주의 자유일 뿐이라면 보편성이 문제될 필요가 없지만, 자유의 관건은 폴리스의 주인이 되느냐 마느냐 이다. 이는 상식적인 민주주의의 정치 원리에서도 멀지 않다.)

한편, 주체성은 앎을 통해 발생한다. 오직 사유하는 한에서 인간은 보편적 주체가 된다. 그리스인들은 보편의 전략으로 근원적인 앎/인식을 택했다. 인식은 서구적 보편의 전략이다.
인간의 마음은 온갖 감정, 의지, 판단이 뒤얽혀 흘러간다. 여기에 머물 때 마음은 자연적, 이기적 욕망의 장소에 지나지 않는다. 보편을 사유할 때 마음은 비로소 보편적 이성이 깃들이는 참된 의미의 정신이 된다. 이는 정신이 사사로운 개별자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보편적 주체의 자리에서 자기와 남을 바라보고 세계를 이해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앎이 아닌 다른 종류의 마음의 소질은

인간을 개별적 한계로부터 벗어나 보편적 만남의 장에 있게 할 수 없다. (cf.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인식이 가장 투명한 방식으로 나타난 시대가 고대 그리스다. 인간이 고립된 존재가 아닌 한 모든 시대, 모든 민족은 나름의 공공성이 있다. 그러나 수준과 정도에 차이가 있다. 고대 그리스인들처럼 정신의 보편성을 극한까지 요구한 이들은 없었다. 물론 그들이 추구한 공동체는 양적인 의미에서 제한된 공동체로서, 완전한 자유와 평등을 실현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질적인 의미에서 폴리스는 자유와 평등의 최고의 성취를 보여주는 공동체로서, 폴리스에 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개별자의 한계를 벗어날 것을 요구했다.

보편에 대한 고대 그리스의 요구는 사유가 납득할 때까지 근거를 대라는 것, 전제나 권위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사유를 통해서 근거를 찾자는 것이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한 시민일 때, 권력은 진리에서 나온다. 오직 로고스가 모든 정당성의 원천이 된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논리적 정당성(진리)이 사회적, 정치적 의미의 권력과 같았다. 진리와 권력이 원론적으로 하나인 시대였다. (cf. 권력이 부정적이 되는 것은 진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순수한 사유에 대한 요구가 보편성을 출현시켰다. 정신은 필연적으로 추상적이다. 구체적인 사유의 맹점은 부지불식간에 기득권자의 이익을 옹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어떠한 기득권도 용납하지 않는 것, 이것이 그리스 정신의 위대함이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 의식은 사사로운 희로애락의 장소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보편의 장소가 되었다